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이재현 전화: 880-2985, 이메일: ljh7623@snu.ac.kr

배포일: 2023.10.13.(금)

스포츠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,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개발도상국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경북궁·청와대 관람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재학생 26명(개도국 학생:22명, 한국 학생:4명)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월 13일(금) 경북궁과 청와대를 방문한다.
- 서울대 DTM은 개발도상국 출신 차세대 스포츠행정가들이 글로벌 스포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 특히 비교과 과정 중 한국어 수업 및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자국과 한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·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게 한다.
- 재학생들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. 특히 K-pop과 K-드라마는 재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일등 공신으로 손꼽힌다.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두 달 즈음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경북궁과 청와대 견학은 미디어로만 접하던 공간을 직접 방문하고,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.

- DTM 입학 전부터 주인도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온 인도 출신의 바이시나비(Vaishnavi Parande) 학생은 “주인도한국문화원 행사에 참여했을 때 설치되어 있던 경복궁 사진이 담긴 배너 앞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며 언젠가 한국에 꼭 가서 경복궁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설렌다.” 라고 말했다.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이번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생들이 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,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” 라고 말했다.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 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20여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